

김상현 역대 최고 인상률 400% 넘을까

■ KIA 내달부터 본격 연봉 협상

조감독 3년 계약 합의 금액 조율중
양현종·나지완 역대연봉 진입 관심



조 감독과 함께 연봉고과 1위 김상현의 계약은 2010년 연봉협상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잭팟이 될 전망이다. 김상현은 올 시즌 홈런(36)·타점(127)·장타율(0.632)부문을 휩쓸며 페넌트레이스 MVP까지 거머쥐었다.

김상현의 올해 연봉은 5천200만원. 김상현은 두산 김현수가 보유한 역대 타자 최고 인상률인 200% (1억5천500만원)는 보장 받았다. 하지만 고과 1위에 팀의 1위 행진을 주도한 만큼 기대치는 더 높다.

프로야구 역대 최고 인상률은 류현진이 보유한 400%. 류현진은 입단 첫 해인 2006년 신인왕과 시즌 MVP를 동시에 달성하며 데뷔 1년 만에 1억 고지에 올랐다. 류현진의 400% 기록을 놓고 김상현과 KIA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시즌 최다 삭감액과 삭감률, 2연패를 기록했던

최희섭의 스토브리그에도 눈길이 쏠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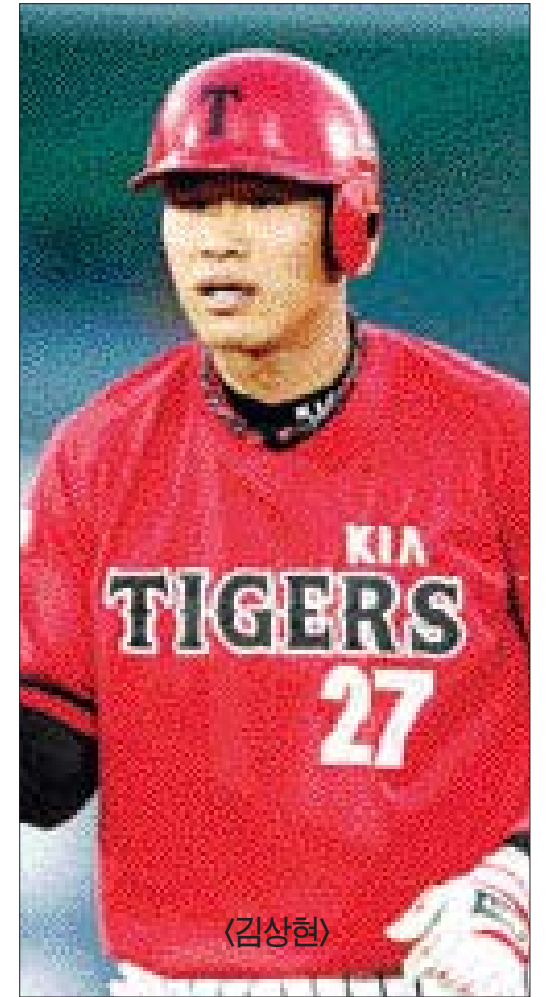
지난해 최악의 부진으로 구단에 연봉을 백지위임했던 최희섭은 3억5천만원에서 42.9% 깎인 2억원에 도장을 찍었다. 1억5천만원이나 삭감된 금액이다.

최희섭은 올 시즌 김상현과의 환상의 호흡을 과시하며 4번타자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연봉 고과에서도 2위를 차지하며 지난해 불명예를 만회하는 선 이상의 대우가 예상된다.

양현종과 나지완의 역대 연봉 진입 여부도 관심사다. 투수부문 고과 1위를 차지한 양현종은 요미우리와의 경기에서 투혼을 보이며 주가가 수직상승했다. 역대 최고의 짜릿한 한국시리즈를 선물한 나지완도 한일전에서 3타점을 쓸어담으며 연봉협상의 유리한 고지에 섰다.

양현종과 나지완의 올 시즌 연봉은 각각 3천500만원과 3천800만원이다. 100% 인상은 100% 확실한 만큼 역대 연봉을 향한 200% 고지를 놓고 자존심 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상현)



LPGA 챔피언십 출전 전남 출신 여성골퍼 출사표



신지애 “올해의 선수상 내것”

함평출신 ‘골프 지존’ 최연소 기록 도전

함평출신 ‘골프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울 태세다.

19일 밤(이하 한국시간)부터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휴스턴시안 골프장(파72·6천650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150만 달러)에 출전하는 신지애는 이 대회 결과에 따라 2009시즌 L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 후보가 될 수 있다. 현재 156점으로 148점의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127점의 크리스티 커(미국)를 앞서 있어 시즌 마지막 대회만 남긴 상황에서 매우 유리한 편이다.

신지애가 올해의 선수상 수상을 확정 짓게 될 경우 역대 최연소 기록이 된다. 현재 최연소 올해의 선수 기록은 1978년 신인왕

과 삼금왕, 올해의 선수상 등을 휩쓴 낸시 로페스(미국)가 갖고 있다. 1957년에 태어나 1978년에 LPGA 무대를 석권한 로페스는 지금의 신지애와 나이는 같았으나 1월에 태어나 4월생인 신지애보다 생일이 더 빠르다. ‘골프 여제’로 불렸던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나 캐리 웹(호주), 오초아가 나란히 25세 때 올해의 선수 자리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신지애가 얼마나 빨리 LPGA 투어를 평정했는지 짐작할 만하다. 신지애는 이미 역대 최연소 삼금왕 기록도 세웠다. 16일 끝난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서 공동 3위에 올라 올해 상금 177만 달러를 벌어들인 신지애는 이미 삼금왕을 확정 지은 상태. 종전 최연소 삼금왕 기록 역시 1978년 로페

스가 갖고 있었지만 신지애가 이미 그 기록은 새로 세웠다.

따라서 신지애가 올해의 선수에 오르면 로페스 이후 31년 만에 신인왕, 삼금왕, 올해의 선수를 휩쓸게 되며 삼금왕,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는 최연소 기록 보유자가 되는 셈이다.

한편 올해의 선수, 최저타수, 다승 부문에서 끝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신지애와 오초아는 19일 프로암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나란히 “상대를 신경 쓰기보다 나만의 경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애는 “최선을 다하고 나서도 올해의 선수상을 받지 못한다면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의연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오초아 역시 “올해의 선수에 오를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에 자신 있는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연합뉴스

위성미 “또 우승하고 싶어요”

장흥출신 ‘천만 달러 소녀’ 2주 연속 정상 꿈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서 65번째 도전만의 첫 우승 감격을 누린 장흥출신 재미교포 위성미(20·나이키골프)가 2주 연속 정상에 도전장을 던졌다.

19일(이하 한국시간) 밤부터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휴스턴시안 골프장(파72·6천650야드)에서 시작되는 LPGA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150만 달러)에 출전하는 위성미는 이날 프로암 대회를 마친 뒤 “또 우승하고 싶다”며 특유의 웃음을 지어 보였다.

‘천만 달러의 소녀’에서 ‘미운 오리’로까지 떨어졌다가 16일 끝난 LPGA 투어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화려한 부활을 알린 위성미는 이번 대회에서도 팬이나 언론으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

을 끌고 있었다. 프로암이 끝나고 공식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도 짬내 간단한 화보 촬영을 마쳐야 했을 정도였다. 아버지 위봉욱(49) 씨는 “아무래도 우승하면서 언론의 관심이 더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위성미는 첫 우승 소감에 대해 “너무 기분이 좋다. 1승을 거둔 것만으로도 정말 기쁘고 싶다”고 의미를 보이며 “사람들이 많이 축하해줘서 기쁘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목표에 대해 “꼭 우승하고 싶

다”면서 각오를 숨기지 않은 위성미는 “지난 대회처럼 재미있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 잘 치겠다”고 다짐했다. 약점으로 지적됐던 쇼트 게임이 좋아진 비결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위성미는 “연습이죠”라고 답했다. ‘천재 소녀’로도 불리웠지만 역시 약점을 보완하는 데는 연습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이다.

위성미는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아 연습량을 많이 늘리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재미있게 연습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회에 이어 12월9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유럽여자골프투어 두바이 레이다스 마스터스(총상금 50만유로)에서 이번 시즌을 마감할 예정인 위성미는 “겨울에는 많이 놀 것 같다”고 웃어 보이며 “더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한국 팬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연합뉴스

내년 LPGA 10개국서 24개 대회 개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0시즌 일정 발표

LPGA 투어 커미셔너 대령을 맡고 있는 마티 에반스는 19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슈거랜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0년에 10개 나라를 돌며 24개 대회를 치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즌 개막전은 2월

18일부터 태국 춘부리에서 열리는 혼다 PTT LPGA 타이랜드(총상금 130만달러)이며 국내 골프 전문 케이블-위성 채널인 J골프가 후원하는 LPGA 클래식(총상금 170만 달러)은 3월25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다.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로 열리는

LPGA 챔피언십(총상금 225만달러)은 슈퍼마켓 체인인 웨그먼스가 새로 후원을 맡아 뉴욕주 피츠퍼드에서 6월24일 시작되며 올해 최나연(23·SK텔레콤)이 생애 첫 우승을 따냈던 삼성월드챔피언십은 일정에서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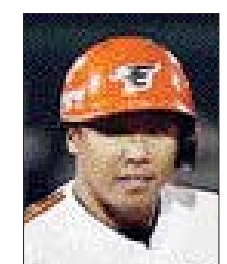
또 국내에서 열린 코오롱-하나은행 챔피언십 역시 대회 일정과 명칭이 ‘미정’인 상태로 발표했다. 하나금융그룹 측은 이에 대해 “2010년 대회 개최에 대해 LPGA 측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범호 日 소프트뱅크행... 3년 65억원

‘꽃범호’ 이범호(28·전 한화·사진)가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 유니폼을 입는다. 이범호는 19일 “소프트뱅크와 계약 기간 ‘2+1’년에 계약금과 연봉을 합쳐 최대 5억원(65억엔)에 계약했다”고 말했다.

계약금은 1억5천만엔이고 첫 2년 동안 보장 연봉은 해마다 1억엔씩 총 3억5천만엔

이다. 이범호가 2년간 좋은 성적을 낸다면 소프트뱅크 구단은 2012년 계약을 연장하는 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이범호의 연봉은 1억5천만엔으로 오른다. 지난 16일 롯데 마린스에 입단한 김태균이 3년간 옵션 포함 7억엔을 받은 것과 비교해도 크게 처지지 않는 좋은 조건이다. 김태균은 계약금 1억엔, 연봉과



옵션으로 각각 1억5천만엔에 사인했다.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김태균(27·지바 롯데)과 함께 최대로 뽑혔던 이범호는 내년부터 한화에서 9년이나 한솥밥을 먹었던 김태균과 퍼시픽리그에서 팀 승리와 개인의 명예를 걸고 양보 없는 자존심 싸움을 벌인다. /연합뉴스